



## 바닥권 형성 가능한 상황

### 1. KOSPI, 추가 하락 쉽지 않은 상황

- KOSPI, 지난 주 저점 형성 당시 2016년 6월 23일 영국 브렉시트 투표일 저점까지 하락했고, P/B(Fwd.12M)는 0.77로 2008년 금융위기 최저점 수준까지 하락
- 아직 단기 저점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가 하락 쉽지 않은 수준이라 판단됨. 다만 급락세가 진행 후 바닥 탈출에 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반등 성공해도 단기 등락 과정 필요할 것으로 전망

### 2. KOSDAQ, 과도한 수준까지 하락 후 반등 중

- KOSDAQ 지수의 지난 주 저점은 540pt 수준으로 2009~2012황보 과정에서 박스권 상단선 수준임. 월봉상 RSI와 일봉상 60일 이평선 이격도 모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수준까지 하락
- KOSDAQ 지수는 지난 주 반등으로 7일 이평선 회복해 단기 저점은 나온 것으로 보임. 다만 617pt 수준의 작년 10월 저점의 저항 존재하고, 급락 후 중기 바닥권 형성에 시간 필요할 전망

### 3. 미국과 중국 증시, 이슈에 비해 제한적 하락

- 미중 무역분쟁 이슈로 상해종합지수 2,800pt 하회. 중요한 지지대 이탈해 2,500pt 전후한 수준까지 하락 가능. 다만 지난 주에 3일 이평선 회복 시도가 나오는 등 반등 가능성 타진할 수 있는 모습 보임
- 미국 S&P500지수, 6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 시도 중. 추가 확인 필요하지만 60주 이평선 지지 확인되면 중장기로 상승세 이어질 수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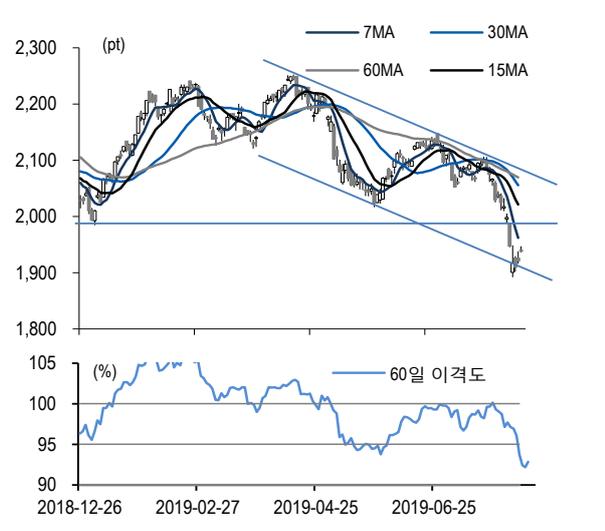
주식시장 투자전략

1. KOSPI, 추가 하락 쉽지 않은 상황

한일 무역갈등이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가고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면서 KOSPI 는 이틀째 반등했다. 지난 주 조정 과정에서 주중 저점은 2016년 6월 24일 영국 국면투표에서 브렉시트가 결정된 날의 1,892pt 를 소폭 하회한 1,891pt 수준을 기록했다. P/B(Fwd.12M)는 0.77배를 기록했는데, 주간 단위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가장 낮았던 때 수준이 0.77배였다. [차트1]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락 채널 하단선 수준까지 하락했고, 60일 이평선 기준 이격도는 92.17%까지 하락한 후에 낙폭을 줄였다. 일반적으로 60일 이평선 이격도가 95% 수준에서 중기 저점이 나오고, 하락세가 강할 때에는 90%수준까지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90%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저점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바닥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주봉상 RSI(상대강도지수)는 30.64%로 마감되었는데, 2008년 이후 30을 하회한 경우는 2011년 8월과 2018년 10월에 각각 한 주에 그쳤고, 그것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리하면 기술적으로 더 하락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반등 시도에 나선 모양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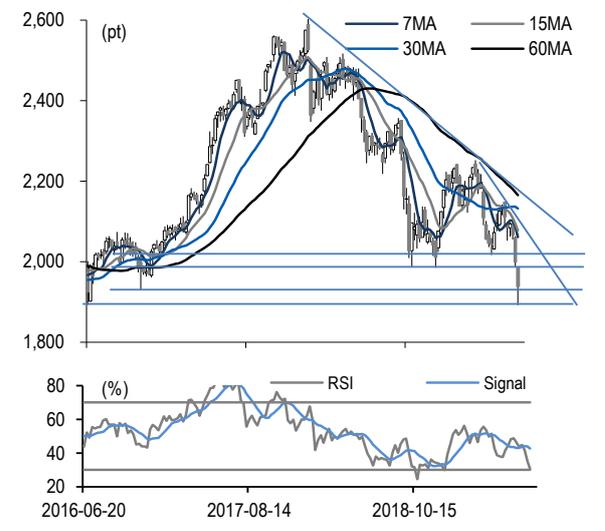
다만 전주말에도 일봉상 7일 이평선을 회복하지 못해 아직도 단기 저점이 나왔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단기 저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처럼 하락세가 강할 경우에는 바닥 다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상승 추세로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차트1] KOSPI 일봉, 60일 이평선 이격도, 추세선, 60일 이격도 92% 수준까지 하락 후 반등. 채널 하단선 지지 시도 중이나 전주말 7일 이평선 저항에서 반등 제한



자료: KRX,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KOSPI 주봉, RSI, 2016년 브렉시트 투표일 저점까지 하락 후 반등. 주간 RSI 과매도권에 근접해 극단적 과매도 수준 나타냄



자료: KRX,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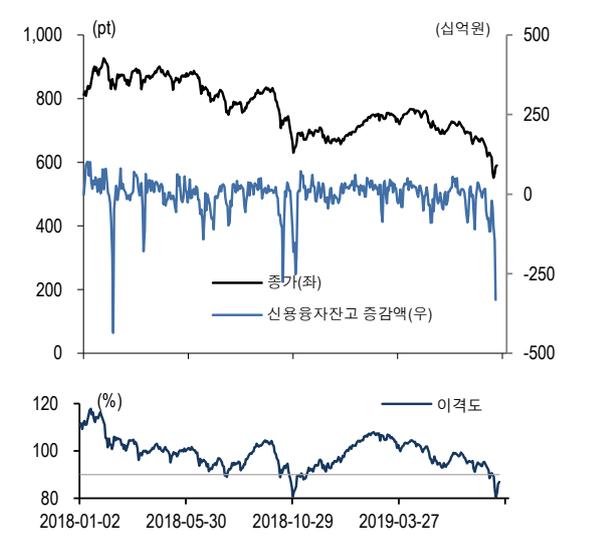
2. KOSDAQ, 과도한 수준까지 하락 후 반등 중

KOSDAQ 지수 역시 중요한 지지대에서 반등 시도에 나서는 모양이다. 지난 8월6일 540pt 수준에서 바닥을 형성했는데, 이 가격대는 [차트4]에 보이는 것처럼 2009~2012년 횡보 과정에서 박스권 상단선을 형성한 가격대로 그 아래로의 하락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월간 RSI 는 전주말 기준으로 36.83%를 기록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후에 2009년에 상승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봉상으로는 60일 이평선 기준 이격도가 80.46%까지 하락했고, 이 역시 2008년 저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자금 흐름상으로 나타난 특징은 KOSDAQ 시장의 신용용자잔고가 급감했다는 점이다. 지난 8월 8일 기준으로 KOSDAQ 신용용자잔고는 4조3,670 억원 수준이고, 전일 대비 3,320억원 감소했다. [차트3]에서 보이는 것처럼 작년 10월 중반과 후반 등 지수 급락세가 진정되는 시점에 신용잔고가 급감하는 모습 보이고, KOSDAQ 지수도 7일 이평선도 회복해 단기 저점 형성 가능성 높은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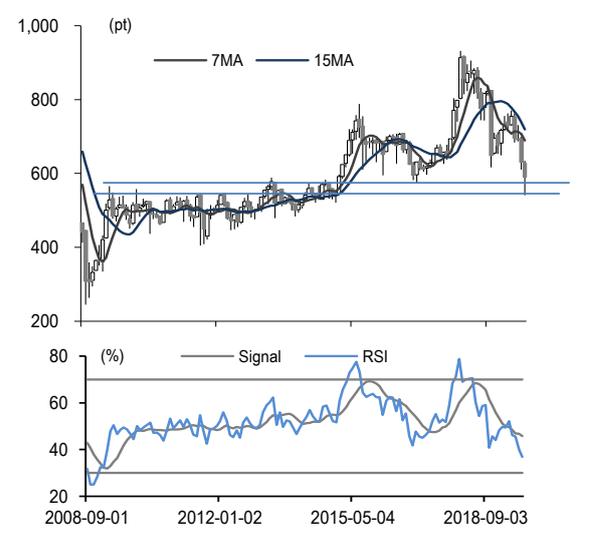
KOSDAQ 지수 역시 하락세가 강한 상황에서 반등하더라도 바닥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 반등 이어져도 617pt 수준에 위치한 작년 10월 저점대 수준이 중요한 저항이 될 수 있고, 등락 과정에서 지난 6월 고점에서 그은 하락 추세선 등 중요한 분기점 돌파해야 증기 이상의 바닥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차트3] KOSDAQ 일봉, 60일 이평선 이격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 7일 이평선 회복해 단기 반등 가능하지만 증장기 바닥 확인에 시간 필요



자료: KRX,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KOSDAQ 월봉, RSI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 2009~2012 박스권 상단선 위치한 540pt 부근에서 반등 시도 중



자료: KRX,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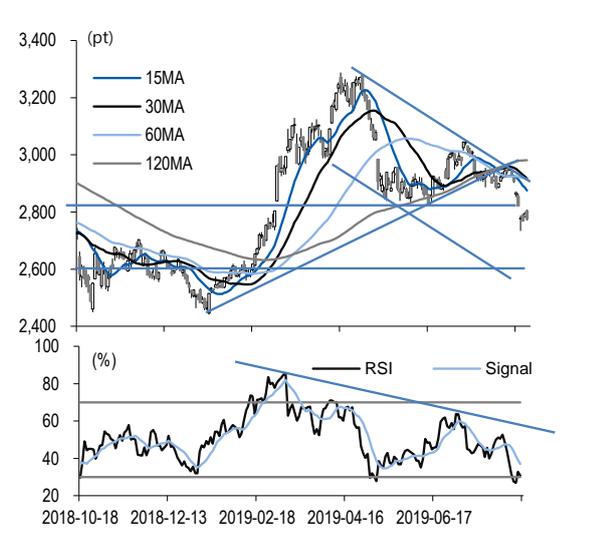
### 3. 미국과 중국 증시, 이슈에 비해 제한적 하락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일부터 3,0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하고,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면서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등 무역분쟁 이슈가 재부각되었다. 이런 가운데 양국의 증시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악화된 상황에 비해 주가 조정은 그리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다.

상해종합지수는 연초 저점에서 그은 상승 추세선과 120일 이평선 지지에 실패할 가운데 8월 초에 무역분쟁 이슈가 부각되면서 단기 하락세가 진행 중이다. 2,800pt 수준에 위치한 지지대를 이탈해 하락 채널 하단선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연초 저점대인 2,500pt 부근까지 조정 가능성이 열린 모양이다. 그러나 지난 8월 6일 장 중에 해머형 캔들이 형성된 후에 3일 이평선 회복 시도가 있었고, RSI 로는 과매도권에 도달해 반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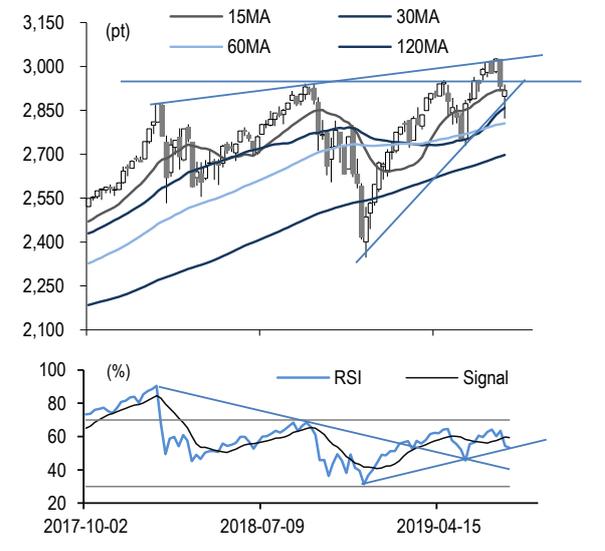
S&P500지수는 채널 상단선의 저항대를 넘지 못하고 조정 중이지만 최근에 60주 이평선 수준에서 반등 시도에 나선 모양이다. 전고점 돌파까지 확인 필요하지만 추가적으로 반등 국면 이어지면 중장기로 추세가 형성될 수도 있는 모양이다. 무역분쟁 격화로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주가 흐름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타진할 수 있을 것이다.

**[차트5]** 상해종합지수 일봉, 2,800pt 수준의 지지대 이탈했지만 하락 속도가 빠르지 않게 나타남. 무역분쟁 이슈가 과거에 비해 크게 주가에 반영되지 않음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S&P500지수 주봉, 60주 이평선 지지에 성공한 점 긍정적. 7주 이평선 등 회복 시 다시 신고가 경신 시도 나올 수 있는 상황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